

한국미용학회지 수록 논문의 연구동향 분석

백 경 진 · 김 미 영**

연세대학교 생활디자인학과 · 경원대학교 의상학과 교수**

The Analysis of Study Trend 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metology

Kyoung-Jin Baek · Mi-Young Kim**

Dept. of Human Environment & Design, Yonsei University

Prof., Dept. of Clothing, Kyungwon University**

(2008. 7. 28. 접수; 2008. 10. 23. 수정; 2008. 10. 31. 채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related to cosmetic studies and to offer the study directions. A journal selected for this study is The Korean Society of Cosmetology only registered on Korea Research Foundation. A total of 493 articles i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metology were reviewed and analyzed carefully.

The results of review and analysis were as follow: The articles of the Korean Society of Cosmetology were classified into varies sections by main subjects, which are Basic Science, Make-up, Hair, Skin, Cosmetic & Hair Product, Beauty History, Beauty Education, Fashion. From the groups of main subjects, it was then classified into secondary subjects. In the result of examined frequencies in main subject of the articles showed highest of 89 in basic science, 84 journals in Beauty Marketing related, 73 in Hair. And from the classified secondary subjects, highest frequencies showed in the study based on second in study based on Cosmetic of 46 and Aesthetician of 41 journals. The research trend in the field of cosmetics showed the quantitative increase of article publication in journals. However, the contents lacked in depth compared to subdivided fields and the target or the method of conduct researches were in disproportion. Therefore, clearness is necessary in definitions of the field of cosmetic study and the standard of division in each fields.

Key Words: The Korean Society of Cosmetology(한국미용학회), The analysis of beauty study trend (미용연구동향분석), Study type analysis (연구유형분석)

Corresponding author ; Mi-Young Kim

Tel. +82-11-215-9403, Fax. +82-41-850-8301

E-mail : mikim@kyunwon.ac.kr

I. 서론

산업사회의 고도 경제성장에 따른 생활수준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인간의 미학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에 따른 외모에 대한 관심 고조와 여성들의 사회활동증가 등으로 미용분야의 학문적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과거 미용학은 패션의 한 분야로써 의류학 분야에서 다루어져 왔으나 미용관련학과가 개설되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 학계와 산업계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지금은 중요한 학문분야로 자리 잡고 있다.¹⁾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미용관련 학회가 증가하고 있는데 1995년에 설립된 한국미용학회를 시작으로 한국패션뷰티학회, 대한피부미용학회, 한국뷰티학회, 한국모발학회, 한국뷰티산업학회 등 2007년까지 총 11개의 학회가 설립되었는데 한국미용학회를 제외하고는 모두 2003년 이후에 설립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미용 관련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나 사실상 기존 학문의 분류에서 미용학이라는 학문의 위치는 아직 뚜렷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른 학문들의 정의를 토대로 미용학의 정의를 내려 본다면 “미용을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기술적으로 연마하는 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²⁾ 미용학은 체계적인 학문적 토대가 없는 실용 학문으로서 출발하여 현재 양적인 성장은 이루었지만 학문의 질적 성장은 아직 미비하다. 이러한 시점에서 미용관련분야의 논문들을 분석하여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의의 있는 일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미용 관련 분야의 논문들을 정리, 분석하여 지금까지의 연구내용과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대상은 미용학회지 중 유일하게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선정한 등재(후보) 학술지인 한국미용학회지에 게재된 연구 논문 총 493편을 선정하여, 연구주제에 따른 유형을 분석하여 미용분야의 연구주제의 경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자료수집

연구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먼저 현재까지 개설된 미용 관련 학회를 조사한 결과 한국미용학회, 한국패션뷰티학회, 대한피부미용학회 및 그 외 8개의 학회(한국뷰티학회, 한국모발학회, 한국두피모발미용학회, 코리아뷰티디자인학회, 한국메이크업디자인학회, 한국피부미용향장학회, 한국뷰티산업학회, 한국미용예술학회)로 총 11개의 학회가 설립되어 있었다. 각 학회의 학회지를 분석한 결과 한국미용학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회들이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어 연구논문의 수가 양적으로 미비하였으며 또한 각 학회의 특성에 따라 특정분야의 연구에 치우쳐 있어 미용분야 전체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기에 무리가 있었다. 따라서 가장 오래된 학회이면서(1995년 창간) 유일하게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선정한 등재(후보) 학술지인 한국미용학회지를 중심으로 학회지 논문의 동향을 분석하였으며 1995년 창간호부터 2007년까지 게재된 총 493편의 논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2. 자료분류

1995년 1월에서 2007년 12월까지 발행된 한국미용학회지의 색인집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연도별로 나누고 같은 연도의 논문은 연구자의 성명의 가나다 순으로 정리하였다. 미용관련 학술지 논문 분석을 위한 자료의 통계처리는 빈도 및 백분율을 사용하였다.

3. 분석방법

문헌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수집된 분석자료는 연도별, 연구주제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류는 한국미용학회에서 분류된 4개의 분과를 참고하여 크게 헤어, 화장, 피부, 기초과학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화장품&헤어제품, 미용역사, 미용마케팅, 미용교육, 패션 분야는 4개 분과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미용학회지에

서 비중있게 다루어지고 있어 분류주제에 추가하였다. 세부주제는 이유리, 이미영(2007)³⁾의 연구에서 제시한 의류학 분류기준과 문병학(2006)⁴⁾의 연구에서 제시한 미용학 분류기준을 참고로 분류하였으며 각 논문의 분류는 논문제목과 주된 연구변인을 기준으로 하였다.

용학회지 수록 논문의 연구동향을 연도별, 연구주제별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논문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III. 연구자료의 분석 및 결과

1. 학회지별 수록논문 수 분석

가 연구에서는 먼저 미용관련학회지별 수록논문의 현황과 수록논문수를 분석한 수, 한국미

용관련학회의 동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현재 국내에 있는 미용학회를 분석하였다. 미용관련학회는 총11개로 한국미용학회, 한국패션뷰티학회, 대한피부미용학회, 한국뷰티학회, 한국모발학회, 한국두피모발미용학회, 코리아뷰티디자인학회, 한국메이크업디자인학회, 한국피부미용향장학회, 한국뷰티산업학회, 한국미용예술학회

<표 1> 미용 관련 학회 설립 현황

학회명	학술지명	설립년도
한국미용학회	한국미용학회지	1995
한국패션뷰티학회	한국패션뷰티학회지	2003
대한피부미용학회	대한피부미용학회지	2003
한국뷰티학회	한국뷰티학회지	2003
한국모발학회	한국모발학회지	2004
한국두피모발미용학회	한국두피모발미용학회지	2005
코리아뷰티디자인학회	코리아뷰티디자인학회지	2005
한국메이크업디자인학회	한국메이크업디자인학회지	2005
한국피부미용향장학회	한국피부미용향장학회지	2006
한국뷰티산업학회	뷰티산업연구	2006
한국미용예술학회	한국미용예술학회지	2007

<표 2> 학회지별 논문분포현황

학회지	연도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합계
한국미용학회지		9	11	14	16	33	45	51	45	44	36	36	68	85	493
한국패션뷰티학회지										11	34	25	37	20	127
대한피부미용학회지										37	50	40	37	16	180
한국뷰티학회지										8	10	13	14	0	45
한국모발학회지											18	20			38
한국두피모발미용학회지											21				21
코리아뷰티디자인학회지												13	24		37
한국메이크업디자인학회지												26	36		62
한국피부미용향장학회지													32	7	39
뷰티산업연구													20		20
한국미용예술학회지														34	34
합계		9	11	14	16	33	45	51	45	100	169	173	268	162	1096

부미용향장학회, 한국뷰티산업학회, 한국미용예술학회 등이 있다. 학회지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한국미용학회가 1995년으로 가장 오래되었으며 2003년에 3개, 2004년에 1개, 2005년에 3개, 2006년에 2개, 2007년에 1개가 나타났다(표 1). 이는 최근 미용관련분야의 학문적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 한국미용학회지의 논문게재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95년에 19편을 시작으로 점차 증가하여 2007년에는 85편으로 총 493편의 논문이 게재되어 미용관련분야에 관한 한, 한국미용학회지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2).

2. 한국미용학회지 수록 논문의 연구 유형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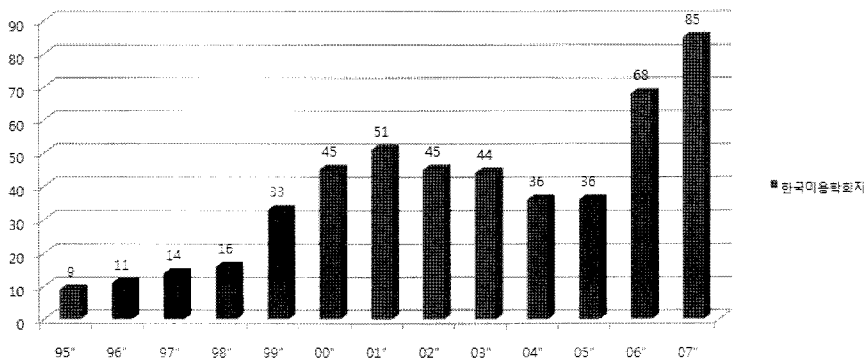
1) 연대별 발표논문수

연대별로 한국미용학회지의 발표논문들을 살펴본 결과 <그림 1>과 같다. 발표논문수는 전체 493편 중 95년 9편(1.83%), 96년 11편(2.23%), 97년 14편(2.84%), 98년 16편(3.25%), 99년 33편(6.65%), 2000년 45편(9.13%), 2001년 51편(10.34%), 2002년 45편(9.13%), 2003년 44편(8.92%), 2004년 36편(7.30%), 2005년 36편(7.30%), 2006년 68편(13.79%), 2007년 85편(17.24%)이었다. 2000년을 기준으로 미용 관련 논문의 양이 90년대에 비하여 양적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산업사회의 고도 경제성장에 따른 생활수준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인간의 미학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결과로 외모에 대한 관심 고조와 여성들의 사회활동증가 등으로 미용분야가 학문분야로 자리 잡게 되면서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2) 연구주제에 따른 유형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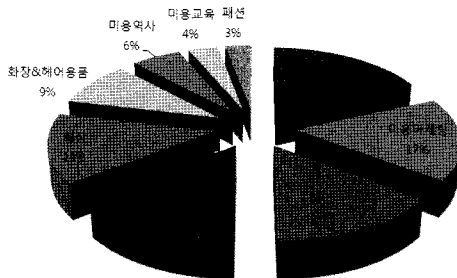
한국미용학회지의 수록 논문을 연구주제에 따른 유형을 분석하여 미용분야 연구주제의 경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 내용별로 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연구주제는 <그림 2>와 같이 크게 화장, 헤어, 피부, 기초과학, 화장품&헤어용품 개발, 미용역사, 미용마케팅, 미용교육, 패션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었으며 각 주제는 다시 세부 주제로 분류할 수 있었다. 각 영역별 세부주제를 살펴보면 먼저, 화장품은 화장행동과 화장디자인으로 분류하였고 화장행동은 다시 구매행동, 화장행동, 화장실태, 화장심리로 화장디자인은 스타일, 색채, 기법연구, 예술사조, 분장&바디페인팅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헤어는 크게 헤어행동과 헤어디자인으로 분류하고 헤어행동은 다시 헤어관리행동, 헤어심리, 헤어실태, 헤어태도로 분류하였고 헤어디자인은 스타일, 색채, 기법연구, 예술사조로 분류할 수 있었다. 피부는 먼저 피부행동, 피부&신체관리행동, 측정도구개발, 피부색으로 분류하고 피부행동은 다시 피부심리, 피부상태로 피부&신체관리행동은 피부관리, 발관리, 신체관리, 네일아트로 분류할 수 있었다. 기초과학 영역은 헤어, 피부, 미만으로 분류되었고 화장품&헤어용품 개발 영역은



<그림 1> 한국미용학회지 연대별 발표논문 수 현황

화장품과 헤어용품으로 분류하였다. 미용마케팅은 크게 마케팅과 인적요인으로 분류하고 다시 마케팅은 경영전략, 현황 및 실태, 서비스, 실내 디자인으로 인적요인은 미용관리사와 고객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미용역사는 화장, 피부, 헤어 크게 3부분으로 분류하였고 미용교육은 먼저 정규교육과정과 자격증교육과정으로 분류한 뒤 정규교육은 다시 교육과정개발과 정규교육수요자로 분류하였고 자격증교육분야 역시 자격증교육과정개발과 자격증 교육수요자로 분류하였다.

연구주제에 따라 각 영역을 분류한 결과 기초과학에 관한 연구가 89편(18.05%)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 미용마케팅 관련 논문이 84편(17.04%), 헤어관련 논문이 73편(14.81%)으로 나타났다. 세부주제에서는 화장품에 관한 연구가 46편(9.33%)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기초과학에서의 헤어 연구가 42편(8.52%)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2> 연구주제의 유형분류(대주제 분류)

3) 연대별 연구주제 유형 분류 및 분석

다음은 연대별로 연구주제의 유형을 분석하여 연구주제의 연대별 경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연대분류는 1995년부터 2007년까지의 기간을 1995년부터 1999년, 2000년부터 2003년, 2003년부터 2007년의 3분기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연대분류는 메트로섹슈얼, 외모제일주의 등으로 인한 패션, 미용분야의 경향이 2000년을 기점으로 많이 변화하였음을 참고하여 2000년을 기준으로 시기를 나누었다.⁹⁾

한국미용학회지에 게재된 논문들의 연구주제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연대별 변화추이를 전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총 493

편의 논문 중 90년대 후반기('95년~'99년)에는 83편(16.84%), 2000년부터 2003년까지는 185편(37.53%), 2004년부터 2007년까지는 225편(45.64%)으로 지속적인 연구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논문의 수적인 증가가 크게 나타났으며 새롭게 등장한 연구주제들이 대부분 2000년 이후인 것으로 나타나 양적인 증가와 더불어 연구주제도 다양해졌음을 알 수 있다.

연대별 연구주제의 변화추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각 연구주제별로 세분화된 연구주제를 분석한 결과는 <표 5>, <그림 3>, <그림 4>와 같다.

90년대 후반('95년~'99년)에는 총 83편의 논문 중 피부와 관련된 연구가 총 19편(3.85%)으로 가장 많았고 그 중에서도 피부관리에 관한 연구가 10편(2.03%)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기초과학 연구가 16편(3.25%)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기초과학 중에서도 역시 피부 관련 연구가 11편(2.23%)으로 2000년대 이전에는 피부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미용마케팅 부분이 11편(2.23%)으로 점포경영전략과 미용관리사에 관련된 논문이 주를 이루었다.

2000년부터 2003년까지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연구의 양적성장이 크게 이루어진 시기로 총 185편(37.53%)이 나타났다. 90년대 후반기와는 달리 미용마케팅 관련 연구가 42편(8.5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미용관리사에 관한 연구가 21편(4.26%)으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는 2000년 이후 현대인들의 외모에 대한 관심 증가로 피부샵, 바디관리, 네일아트 등 미용과 관련된 업종들의 수적팽창과 동시에 미용업 종사 인구도 높아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⁶⁾ 즉 미용업 종사자들의 업무특성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건강상의 장애와 스트레스, 업무만족도 등과 관련된 연구가 활발해졌다고 볼 수 있다.⁷⁾ 다음으로는 헤어와 관련된 연구가 32편(6.49%), 기초과학에 관한 연구가 29편(5.88%)으로 높게 나타났다. 헤어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헤어디자인 영역에서 스타일, 색채, 기법에 관한 연구가 크게 증가 했으며 기초과학에 관한 연구에서도 피부보다는 헤어와 관련된 연구가 15편

(3.04%)으로 활발하게 나타났다. 또한 2000년대에 들어 화장에 관한 연구가 18편(3.65%)으로 90년대 후반기에 7편(1.42%)인 것과 비교해 볼 때 2배 이상 증가하였다. 90년대 후반기에 비하여 화장에 관한 연구 주제들이 다양해 졌으며 특히 구매행동과 화장실태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나타나 이는 의류학에서 나타난 변화와 같이 미용학에서도 마케팅 전반활동에 관한 연구에서 소비자행동과 관련된 연구로 연구주체가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⁸⁾ 또한 이 시기의 헤어에 관련된 연구가 주로 스타일, 색채, 기법과 관련하여 나타난 것과 달리 화장은 디자인보다는 구매행동, 실태, 화장심리 등을 다룬 화장행동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나타났는데 2000년 이후 나타난 피부미인, 생일 등의 열풍으로 자연스러운 화장, 내추럴 화장의 유행으로 인한 영향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나타난 연구 중 두드러지게 나타난 변화로 신체관리에 관한 연구의 급증을 볼 수 있다. 2000년대 이전에는 피부미인, 꽃미남과 관련하여 피부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나타났다면 2000년 이후에는 몸짱, S라인과 같은 용어의 유행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얼굴보다는 몸매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이와 더불어 신체관리에 관한 연구도 활발해졌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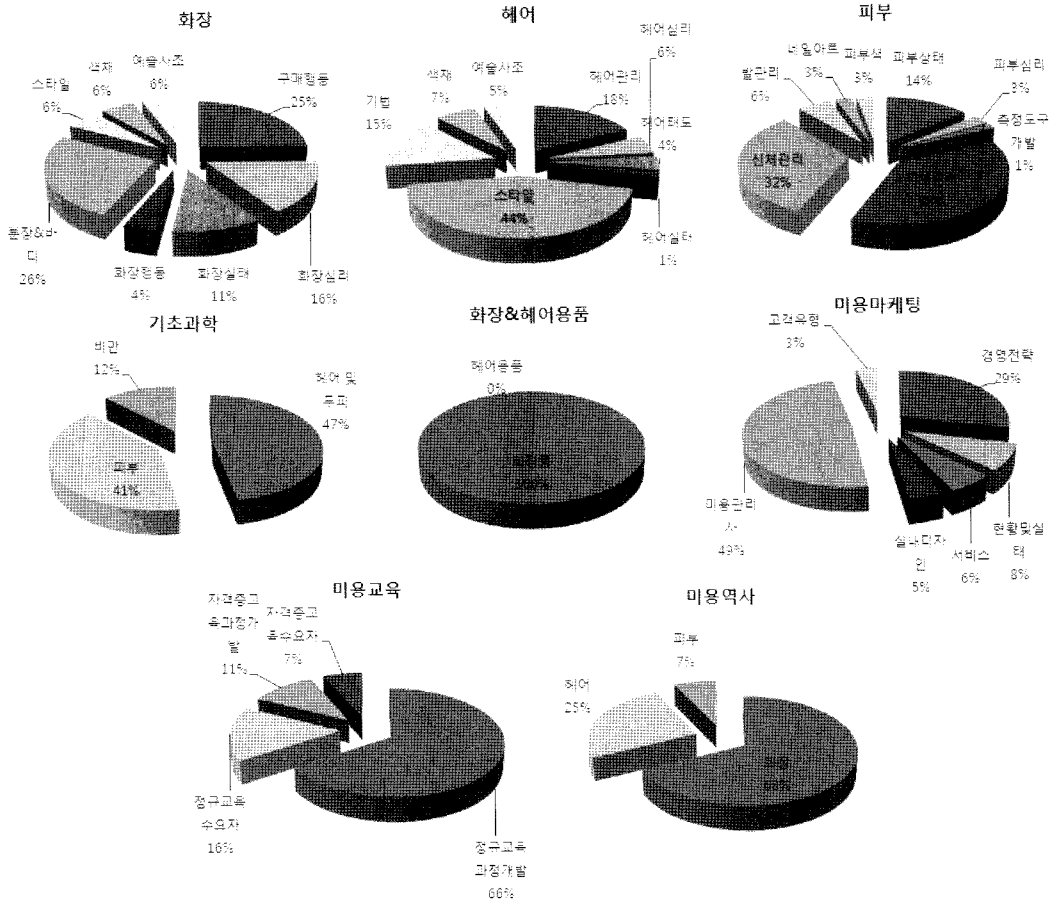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변화를 살펴보면 기초과학에 관한 연구가 43편(8.7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초과학에 관한 연구는 이전시기(2000년~2003년)와 마찬가지로 헤어에 관한 연구가 25편(5.07%)으로 가장 활발하게 나타났으나 차이점으로는 두피와 관련된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나타나 두피케어와 탈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초과학 연구 중 비만에 관한 연구가 7편(1.42%)으로 95년-99년에 3편(0.61%), 2000년-2003년에 1편(0.20%)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였으며 신체관리에 관한 연구 또한 5편(1.62%)으로 꾸준히 나타나 신체에 대한 관심도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는 화장에 관한 연구가 35편(7.10%)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2000년대 초반과 마찬가지로 구매행동, 화장실태, 화장심리에 관한 연구가 꾸준히 나타났으며 화장디자인과 관련하여 분장과 바디페인팅에 관한 연구가 12편

(2.43%)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그 동안 미용화장(Beauty Make-up) 분야에서 한정적으로 이루어졌던 연구가 분장, 예술화장(Art Make-up), 바디페인팅(Body painting) 분야로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화장품과 헤어제품에 관한 연구가 34편(6.90%)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전 시기와 비교하여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화장품에 관한 연구는 주로 성분분석과 효능과 관련된 실험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헤어, 특히 두피와 탈모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비하여 헤어제품과 관련된 연구는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앞으로의 연구 활동이 요구되어진다. 또한 미용교육에 관한 연구는 95년부터 조금씩 등장하여 최근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연구의 초점이 주로 정규 교육과정에 맞춰져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격증 교육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국내의 미용사 자격시험이 1948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도 획일적이고 비능률적인 교육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격증 교육실태⁹⁾를 감안한다면 자격증교육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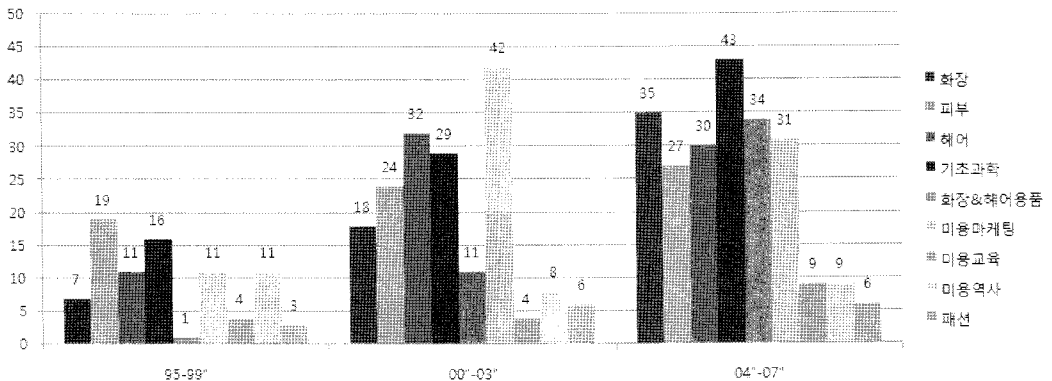
이상으로 한국미용학회지에 게재된 연구논문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먼저, 미용연구의 영역이 불분명하여 연구주제를 세분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다양하게 세분화된 연구영역에 비해 연구내용의 깊이가 없었다. 또한 연구대상이나 연구방법이 편중되어 있어 비슷한 내용의 연구가 많았고 같은 주제라 할지라도 개념이나 용어가 통일되지 않고 사용되어 연구내용의 이해에 혼동을 주어 연구결과를 누적시키기 어려웠다. 마지막으로 의류학분야에서 토탈코디네이션의 중요성과 외모의 관심 증가의 영향으로 미용관련논문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과 달리 미용학에서 다루어지는 패션관련연구들은 미흡하게 나타났다.

<표 4> 한국미용학회의 연대별 연구변화

연구주제		년도	95-99	00-03	04-07	합계
화장	화장 행동	구매행동	0(0.0%)	5(1.01%)	12(2.43%)	17(3.45%)
		화장행동	0(0.0%)	1(0.20%)	2(0.41%)	3(0.61%)
		화장실패	1(0.20%)	6(1.22%)	1(0.20%)	8(1.62%)
		화장심리	3(0.61%)	5(1.01%)	3(0.61%)	11(2.23%)
	화장 디자인	스타일	1(0.20%)	2(0.41%)	1(0.20%)	4(0.81%)
		색채	0(0.0%)	1(0.20%)	3(0.61%)	4(0.81%)
		기법	0(0.0%)	0(0.0%)	1(0.20%)	1(0.20%)
		예술사조	1(0.20%)	3(0.61%)	0(0.0%)	4(0.81%)
	분장&바디	1(0.20%)	5(1.01%)	12(2.43%)	18(3.65%)	
	합계	7(1.42%)	18(3.65%)	35(7.10%)	70(14.20%)	
헤어	헤어 행동	헤어관리행동	1(0.20%)	5(1.01%)	7(1.42%)	13(2.64%)
		헤어심리	1(0.20%)	2(0.41%)	11(0.20%)	4(0.81%)
		헤어실패	0(0.0%)	0(0.0%)	11(0.20%)	1(0.20%)
		헤어태도	0(0.0%)	2(0.41%)	11(0.20%)	3(0.61%)
	헤어 디자인	스타일	5(1.01%)	13(2.64%)	14(2.84%)	32(6.49%)
		색채	0(0.0%)	5(1.01%)	0(0.0%)	5(1.01%)
		기법연구	2(0.41%)	5(1.01%)	4(0.81%)	11(2.23%)
		예술사조	5(1.01%)	0(0.0%)	2(0.41%)	4(0.81%)
	합계	11(2.23%)	32(6.49%)	30(6.09%)	73(14.81%)	
피부	피부 행동	피부심리	1(0.20%)	11(0.20%)	0(0.0%)	2(0.41%)
		피부상태	2(0.41%)	2(0.41%)	6(1.22%)	10(2.03%)
		측정도구개발	1(0.20%)	0(0.0%)	0(0.0%)	1(0.20%)
	피부·신체 관리	피부관리	10(2.03%)	5(1.01%)	12(2.43%)	27(5.48%)
		발관리	2(0.41%)	11(0.20%)	11(0.20%)	4(0.81%)
		신체관리	2(0.41%)	13(2.64%)	8(1.62%)	23(4.67%)
		네일아트	0(0.0%)	2(0.41%)	0(0.0%)	2(0.41%)
		피부색	1(0.20%)	11(0.20%)	0(0.0%)	2(0.41%)
	합계	19(3.85%)	24(4.87%)	27(5.48%)	71(14.40%)	
기초 과학	헤어 및 두피	2(0.41%)	15(3.04%)	25(5.07%)	42(8.52%)	
	피부	11(2.23%)	13(2.64%)	12(2.43%)	36(7.30%)	
	비단	3(0.61%)	1(0.20%)	7(1.42%)	11(2.23%)	
	합계	16(3.25%)	29(5.88%)	43(8.72%)	89(18.05%)	
화장& 헤어용품	화장품	1(0.20%)	11(2.23%)	34(6.90%)	46(9.33%)	
	헤어용품	0(0.0%)	0(0.0%)	0(0.0%)	0(0.0%)	
	합계	1(0.20%)	11(2.23%)	34(6.90%)	46(9.33%)	
미용 마케팅	마케팅	경영전략	4(0.81%)	12(2.43%)	8(1.62%)	24(4.87%)
		현황 및 실패	1(0.20%)	4(0.81%)	2(0.41%)	7(1.42%)
		서비스	0(0.0%)	3(0.61%)	2(0.41%)	5(1.01%)
		실내디자인	0(0.0%)	1(0.20%)	3(0.61%)	4(0.81%)
	인적 요인	미용관리사	6(1.22%)	21(4.26%)	14(2.84%)	41(8.32%)
		고객유형	0(0.0%)	1(0.20%)	2(0.41%)	3(0.61%)
	합계	11(2.23%)	42(8.52%)	31(6.29%)	84(17.04%)	
미용 교육	정규 교육	교육과정개발	3(0.61%)	3(0.61%)	6(1.22%)	12(2.43%)
		정규교육 수요자	1(0.20%)	0(0.0%)	2(0.41%)	3(0.61%)
	자격증 교육	자격증 교육과정	0(0.0%)	1(0.20%)	1(0.20%)	2(0.41%)
		자격증 교육 수요자	0(0.0%)	0(0.0%)	0(0.0%)	0(0.0%)
		합계	4(0.81%)	4(0.81%)	9(1.83%)	17(3.45%)
미용역사	화장	8(1.62%)	6(1.22%)	5(1.01%)	19(3.85%)	
	피부	2(0.41%)	0(0.0%)	0(0.0%)	2(0.41%)	
	헤어	1(0.20%)	2(0.41%)	4(0.81%)	7(1.42%)	
	합계	11(2.23%)	8(1.62%)	9(1.83%)	28(5.68%)	
패션	3(0.61%)	6(1.22%)	6(1.22%)	15(3.04%)		
합계	83(16.84%)	185(37.53%)	225(45.64%)	493(100%)		



<그림 3> 세부주제별 빈도그래프



<그림 4> 연대별 연구주제 변화추이

IV. 요약 및 결론

최근 미용분야에 대한 학계와 산업계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미용학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미용과 관련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그 중 한국미용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총 493편을 대상으로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연구내용에 따라 크게 피부, 헤어, 화장, 기초과학, 미용경영, 미용교육, 패션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었으며 각 분류 안에서 다시 세부주제로 나누었다. 그 결과 기초과학에 관한 연구가 89편(18.05%)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 미용마케팅 관련 논문이 84편(17.04%), 헤어관련 논문이 73(14.81%)편으로 나타났다. 세부주제에서는 화장품에 관한 연구가 46편(9.33%)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두피, 헤어에 관한 연구가 42편(8.52%)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대별로 분류하였을 때, 90년대 후반(1995년~1999년)에는 미용 관련 연구가 시작되는 시기로 여러 영역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세부연구주제가 다양하지 않고 연구의 질적 수준이 미흡하게 나타났다. 2000년부터 2003년까지는 미용관련 연구가 본격화되는 시기로 여러 개의 미용학회 설립과 더불어 연구 활동이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새롭게 등장한 세부 연구주제도 많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연구변화를 살펴보면 2000년대 초반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양적성장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특정 분야를 중심으로 한 심도 깊은 연구 활동은 미흡하게 나타났다. 지금까지 미용관련분야의 연구동향을 살펴본 결과, 학회지 수록 논문의 양적인 증가가 크게 이루어졌으나 많은 문제점도 있었다. 그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 학회에서의 연구내용별 분과형태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연구주제를 세분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미용연구 영역의 정의와 각 분야 간의 분류기준을 명료화하고 학회마다 연구내용별 분과형태를 통일한다면 학회지 동향분석이 용이하리라고 본다.

둘째,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세분화된 연구영역에 비해 연구내용의 깊이가 없었으며 연구대상이나 연구방법이 편중되어 있어 비슷한 내용의 연구가 많았

다. 그리고 같은 주제라 할지라도 개념이나 용어가 통일되지 않고 사용되어 연구내용의 이해에 혼동을 주어 연구결과를 누적시키기 어려웠다. 또한 연구방법이나 분석방법이 체계적이고 과학적이지 못한 문제점이 있었다.

셋째, 미용관련 분야는 연구당시의 패션, 미용의 유행경향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시대의 유행경향과 소비자의 관심 영역과 연구 분야가 거의 일치하고 있어 연구주제 선정 시 유행의 분석과 소비자의 욕구 파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의류학 분야에서 토탈코디네이션의 중요성과 외모의 관심 증가의 영향으로 미용관련논문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과 달리 미용학에서 다루어지는 패션관련연구들은 미흡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앞으로 미용관련연구는 미용영역의 정의와 기본적인 용어 및 개념정의 등이 우선되어야 하며 객관적인 연구방법이나 분석방법이 보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패션과 미용분야간의 연관성 및 연구결과를 통한 중범위 이론의 확립이 필요할 것이다.

가 연구는 한국미용학회지에 실린 논문들을 분석하였는데, 총 11개의 학회지 중 대표학회지 하나만을 분석하였으므로 미용분야 전체 동향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최근에는 의류학 분야에서도 미용분야의 연구가 발표되고 있다. 따라서 의류학 분야에서의 연구논문들도 포함되어 비교, 분석한다면 좀 더 객관적이고 정확한 분석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 문헌

- 1) 최희진, 김성남 (2007). 국내 미용조직의 현황 및 개선안 연구. *한국미용학회지* 13(2), pp.439-447.
- 2) 문병옥 (2006). 한국 여성 헤어스타일과 미용회보 표지 헤어스타일에 관한 비교 연구: 1980년대 이후 발행된 미용회보 표지를 중심으로. 남부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p.21.
- 3) 이유리, 이미영 (2007). 패션마케팅 분야의 4년제 교육과정과 『복식』지 연구동향 비교.

복식 57(5), pp.123-139.

- 4) 문병옥 (2006). Op. cit., p.6.
- 5) 이승윤, 구인회 (2005. 1. 31). 주거문화, 패션 · 미용생활에서 나타나는 트렌드. 자료검색일. 2008. 7. 26. 자료출처 <http://www.advertising.co.kr>
- 6) 한수옥 (2005). 미용관련학과 학생들의 취업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고신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
- 7) 김희진 (2003). 피부관리사들의 감정노동과 소진에 관한 연구. *한국미용학회지* 9(1), pp.86-119.
- 8) 이영혜 (1995). 복식사회심리학분야의 연구 경향에 관한 분석(1974-1994) -복식사회심리학, 소비자행동 및 마케팅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7.
- 9) 김춘일, 송선영 (2000). 전문대학 미용관련학과의 발전방안. *제주한라대학 논문집* 23, pp.153-163.